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FERDINANDO FREGA · GILLETTENARRATIVE · GILLETTEVATICANO · 09/17

처음 소통한 것은 옷이 없는 원시인들이었다. 처음 보도한 것은 옷과 기자증을 가진 원시인들이었다. 여전히 원시인들이다.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앞의 사람들은 삶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뒤의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들을 되살려 내며 먹고산다.

여기에는 논쟁이나 비평을 위한 시간이 없다. 나는 둘 중 어느 쪽도 해 본 적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통해 그 둘 사이의 인류학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소통의 첫 번째 진짜 형태는, 여기서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겠지만, 침묵이다.

말 이전에. 목소리 이전에. 몸짓 이전에. 자세 이전에. 침묵은 언제나 사람의 지능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능력으로 재 왔다.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남자들은 말이 없었다. 별을 보면서. 추상적인 것을. 상상된 것을. 그러다 멀리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자기들뿐이라고 확신한 채,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 통제된 어조. 통제된 리듬. 정연한 박자. 신중하게 놓인 단어 하나하나. 우연에 맡겨진 것은 없다.

그러나 침묵이 인류에게 남긴 첫 번째 교훈은 안으로 삼가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방법이다. 진짜 결정이 내려지는 모든 공간 안의 마지막 변경.

그리고 침묵 안의 소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다. 그것은 안에서 온다.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소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소음. 본능적이고 정서적인 소음. 한꺼번에.

그것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언제나 그렇듯 여자들이다.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기능적이어서, 인류의 번식을 이어 가는 임무까지 떠맡았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은 각자의 경험에 맡긴다.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의 가장 좋은 부분이다.

정보는 우리가 어릴 때 하던 놀이를 떠올리게 한다. 모두 둥글게 앉는다. 첫 사람이 옆 사람 귀에 단어 하나를 속삭인다. 그것이 열두 사람을 거쳐 전달된다. 반대쪽 끝에서 나온 것은 대개 웃음판이었다.

놀이는 단어 하나로도, 문장 전체로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다.

살 것이다로 시작한다. 열두 번을 거친 뒤 반대쪽 끝에서 나온 말은 죽을 것이다였다.

우리는 모두 그가 살 줄 알았다고 시작한다. 열두 번을 거친 뒤 돌아온 것은 이랬다. 모두가 그가 죽은 줄 알고 있었다. 장례식은 12일 12:00으로 정해졌다. 하 하 하 하.

오늘 내가 언론이 정보를 옮기는 방식을 보는 것이 정확히 그렇다. 한 사건에 대한 같은 첫 문장이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된다.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라고 여겼던 것이, 가판대와 편집국을 갈라놓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어느 산업의 쓰디쓴 진실이다.

결국 그 둘은 하나의 실을 공유한다. 둘 다 같은 원시적 기원의 자식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만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나는 지구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끝에서 두 번째일 뿐이다. 마지막 사람은 아직 줄 저쪽에서 누군가의 귀에 속삭이고 있다.

Ferdinando